

‘화엄청량소초십지품 삼가본 사기’ 봉선사 능엄학림서 출간



봉선사 능엄학림 2기 학인들이 <화엄청량소초십지품 삼가본 사기> (봉선사 능엄학림)를 정서하고 현토한 책을 펴냈다.

‘십지품’ 부분 현토본으로

조선 학승이 남긴 경학 자료화에 의의

현존하는 화엄경 사기는 총 27종 50권이지만 그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시대 화엄학의 대강백인 설파상언(雪坡尙彦, 1707~1799)과 연담유일(蓮潭有一, 1720~1799) 인의 <화엄경청량소초사기(華嚴經淸涼疏抄私記)>인 <유망기(遺忘記)>와 <잡화기(雜華記)>, <잡화부(雜華附)>를 정서하고 토를 달았다. 이 중 1차로 ‘화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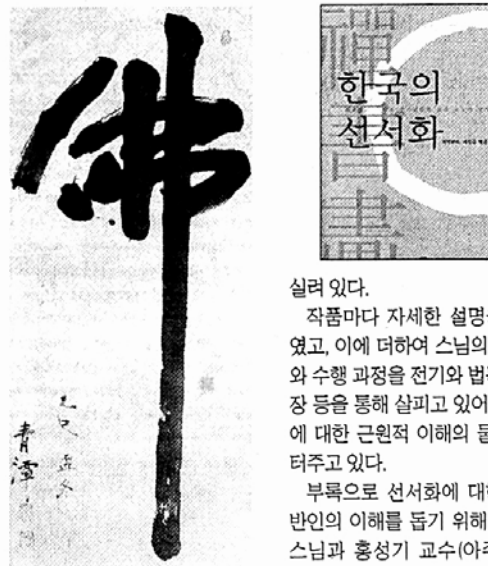
‘십지품’ 부분만 모아 이번에 책으로 묶었다. 화엄경 사기 전체를 정서·현토하려면 앞으로 4년 정도가 더 걸릴 예정이다. <사기>는 <화엄경 소초>에서 화엄경의 어려운 부분들을 상세히 풀이하고 오자 발자를 찾아 바로잡아 놓은 일종의 주석서다. 근세에 이르기까지 도 전통 강원에서는 <화엄경소초본>을 토대로 <사기>를 공부해왔다. 하지만 해방 이후 학제가 축소되면서 강

원 교과목에서 사라졌다. 더구나 <사기>는 초서에 가까운 흘림체로 되어 있어 판독하기가 어렵고 문장 해독이 까다로운 몇몇 강백스님들에 의해서만 그 맥이 전해져왔다. 이번 능엄학림의 <사기> 정서 현토 작업은 조선시대 학승들이 남긴 귀중한 경학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책의 뒷부분에는 색인을 실어 내용을 찾아보기 쉽게 했다.

<삼가본사기>의 정서 현토 과정은 전통적인 경학연구방법을 따랐다. 먼저 학인들이 초서 형태로 쓰여진 사기 원본을 해독하고 정서해 토를 달다. 그것을 강주스님인 월은 스님이 감수를 한 뒤 학인들에게 나누어주면 학인들이 논감을 통해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수정한 것을 다시 강주 스님이 검토해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을 거쳤다.

<화엄청량소초십지품 삼가본 사기>의 <유망기>는 동국대학교도서관 소장본과 부산 미륵암 백은 스님 소장본을 저본으로 삼았고 <잡화기>는 백은 스님 소장본을, <잡화부>는 우진 스님 소장본을 저본으로 삼았다.

‘한국의 선사화’ 지명·이상균 엮음



◊청담 스님 작 '佛'.

현대 고승·거사 42명 작품 수록

청담 스님이나 성철 스님 등 귀에 익은 고승대덕들의 대표적 선사화를 가려 엮은 책이 나왔다. <한국의 선사화> (생각의 나무)는 청담, 성철, 서용 스님은 물론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만봉, 석정 스님에서부터 최근 대중의 호응을 모으고 있는 원성 스님에 이르는 39명의 스님과 송광무 씨 등 거사 3명의 선사화를 한자리에 모았다. 경봉 스님의 ‘세계일화’, 성철 스님의 ‘일원상’, 서용 스님의 ‘수처자주’ 등 70여 점의 작품이

불교적 의미에서 ‘선의 목적은 참나를 깨닫는데 있으므로 선묵은 붓을 잡는 사람에게 구도의 길이 되고, 보는 사람에게 마음을 비우는 공부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선사화의 가치란 기교적 세련이나 예술적 완성도가 아니라 수행의 공력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책을 통해 선보인 선사화는 ‘2002 세계 고승대덕 발우 선사화 특별전’을 통해 10일부터 16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공개된다. 값 1만8천원.

“대승불교 바로 알기 위해 초기불교 이해 필수적”

한국불교리성전협회 전재성(사진) 회장은 올 초 큰일을 하나 저질렀다. 팔정도, 연기 등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에 대해 부처님과 제자들이 주고받은 문답을 불교 초기 언어인 팔리어로 기록한 <쌍웃따 니까야>를 한글 11권으로 완역해 낸 것이다. 그런 그가 최근 <오늘 부처님께> (한국불교리성전협회)를 펴냈다. 한 권으로 읽는 쌍웃따 니까야란 부제가 말해주



책과 삶

한국불교리성전협회 전재성 회장

맛지마 니끼야 번역

하루 여섯시간 씨름

선 화장이 고집스럽게 초기 불교의 대장경인 팔리어 경전의 한글 번역에 매달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상황과 사건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한역 대장경은 몇 가지 고리치킨 이론을 동어반복적으로 나열하거나 형이상학적이고 이론적인 원경주의를 지향하다 보니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팔리 경전의 니까야에는 부처님과 제자들의 대화는 물론 수행자, 바라문, 상인 등과의 질문과 답변이 현장에서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생생하게 기록되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원음으로 들을 수 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동국대 인도철학과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친 전 회장은 독일 본 대학에서 인도학·티베트학을 연구한 이후 89년부터 팔리어 경전 번역에 모든 것을 바쳐왔다. 92년 경전연구소에 들어가 <쌍웃따 니까야> 1, 2권 번역 원고의 일부가 소실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올 초 한글 완역을 끝냈고, 지금도 팔리어 대장경의 다섯 니까야 중 <맛지마 니까야> (한역 중앙환경에 해당) 번역을 위해 혼자서 하루 6시간 이상을 책과 씨름하고 있다.

“대승불교의 경전이란 것도 양과 겉질 벗기듯 핵심으로 다가가 보면 바로 초기불교의 가르침에 닿습니다. 대승불교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초기불교의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형진 기자 jiny@buddhapa.com

국악을 쉽고 재미있게 해설

‘국악, 이렇게 들어보세요’ 송혜진 지음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음악인 ‘국악’이 우리에게 매우 낯설다. 하지만 송혜진 교수(숙명여대 전통문화예술대학원)는 <국악, 이렇게 들어보세요> (다른 세상)를 통해 재미있는 국악의 세계로 독자를 이끈다. 모두 7부로 구성된 이 책에는 명사들이 추천하는 국악명곡과 노래음반·연주음반 찾아보기, 국악에 담긴 한국인의 정서 등이 담겨 있다. 값 1만2천원.

‘휴식’ 월호 스님 지음



하루하루 복잡하고 바쁜 생활을 사는 사람들은 마음의 휴식과 안식을 찾게 된다. 하지만 막상 휴식할 시간이 주어지면 그냥 폭·쉬지를 못한다. 고작 한다는 것이 텔레비전이나 신문 잡지를 뒤적이는 것이 전부이기 십상이다. 이런 현대인들에게 월호 스님은 조용히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휴식’을 가질 것을 권한다.

“내마음이 쉬면 세상이 된다”

월이 청정하면 세상이 청정하다(心淸淨 國土淸淨)는 유마경의 말씀에 빗대어 ‘내 마음이 쉬면 세상이 된다. 내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면 세상도 평화롭지 못하다. 마음이 쉬지 못하면 진정한 휴식이라 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하는 월호 스님. 진정한 쉬음 선의 정신에서 찾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

책 뒷부분에는 2000년 조계종 포교논문 공모에서 포교원장상을 수상했던 스님의 ‘그릇이론에 의한 장애물 자교육’을 실었다. 값 8천원.

출판 담당 =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a.com

‘이래도 모르시겠습니까’ 성법 스님 지음



(www.sejon.or.kr)에 올린 글들을 모은 <이래도 모르시겠습니까>를 펴냈다. 작년 여름부터 홈페이지를 운영 하고 있는 스님은 홈페이지 회원들

에게 한 달에 서너 번씩 <화엄경> 해설을 메일로 보냈다. 이를 위해 스님은 무비스님(조계종 교육원장)의 <80화엄경 한글본>을 중심으로 <화엄경>에 대한 해설과 자료, 논문들을 모아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간추려 책으로 엮은 것이다. 짧은 시간에 해설을 붙인 탓에 약

화엄경 계승에 비취 본 자화상

같은 거칠지만 일상적 표현과 적절한 예시는 읽는 이에게 쉽게 다가온다. 부록으로 스님이 현재 홈페이지에 연재하고 있는 ‘과화와 불교’를 간추려 실었다. 값 8천원.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책방 역시인 집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그곳엔 부처도 갈 수 없다	대 우	현암사
2	회색고무신	윤형광	시공사
3	참선교육1	현담	도서출판선
4	영가전도	우홍	효림
5	빙의	묘심화	한림
6	달라이라마의 행복론	류시화	김영사
7	붓다의 가르침과 팔정도	전재성	한울
8	극락은 있다	관정	붓다의마음
9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	일지외	민족사
10	성철스님 사봉이야기	원택	김영사

도서 안내: (02)737-0695

깨달음으로 가는 외길

그곳엔 부처도 갈 수 없다

물리학 원리와 화엄경, 천상 禪과 선문답을 아울러 깨달지 못한 누구라도 절대 경지를 얻게 하는 책. 대승 지음 1권 15,000원. 현암사. 전화: 365-5051~6, 팩스: 313-2729

아름다운 차의 세상을 열어갈 차 전문지

월간 차의 세계 110-140 서울시 중로구 수송동 46-19 편입B/D 403호
TEL: (02)733-8076, 8078 FAX: (02)723-7461
각권 5,500원 정기구독료 60,000원

“월간 차의 세계는 3개의 색션으로 이루어진 고품격 차전문지입니다”

1권 차의 미(美) · 차는 물 익혀 먹는 것이다
불교의 차시세계 · 귀한 차는 몽정차의 맛을 이었고

2권 차와 문화 · ‘찌다거(喫茶去)’ 와 다선일미(茶禪一味)
우리 차의 향기 | 매화차 · 흑한에 풍기는 짙은 향기
우리 차의 원류를 찾아서 | 일본 땅에서 만난 원효의 무애차
세이다이사(西大寺) 대차의식 원효 무애차로부터 비롯되었다

3권 차와 인물
차 한 잔에 담긴 얼굴 | 명노 윤석관
인격이 녹아든 차, 파형미(破形美)를 사랑하는 차인
명인 기행 | 백산 김정옥
7대째 조선 도자기의 맥을 이어
다기를 빛는 백산(白山) 김정옥(金正玉)

지사 · 지국을 모집합니다

월간 차의 세계와 함께 왕 진취적인 전국 지사와 지국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지역은 경기·인천·경북·경남·강원·충청·대전·광주지역이며, 아울러 객원지에도 함께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연락바랍니다

2002년 4월 통권 4호

차의 세계

차 한 잔으로 기업환경 바꾼다

차인과의 대화 · 소설가 김재섭

염제 신농은 동이족 차의 역사는 신농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기획연재

>> 조선 도자기의 비밀 ② 재해석된 이도차완(伊浦茶碗)의 세계

>> 이도차완(伊浦茶碗)의 역사 ② 이도차완의 도요지와 조형

참선교육 (선수행입문서)

♪ 月 - 참선은 사무나 하나 - ♪ 月

시간복, 건강복, 재복 등 세가지를 갖춘 후에 대신심, 대본심, 대의정이 받쳐주어야 화두일념으로 확철대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으면서도 분명한 ‘참선교육’ 본 교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권 참선의 목적, 종류, 자세는 물론 수행자가 택해야 할 음식이나 장소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자세할이 지나쳐 세심할 정도인데, 참선 수행을 할 때, 양말을 신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언급할 정도로 실재적인 내용.
[참선의 목적 (참선의 정의, 참선의 역사), 종류(범부선, 외도선, 소승선, 대승선, 최상승선), 자세(자세의 종류, 참선 전후의 운동, 호흡하는 법, 참선 시 세 부적인 요령), 참선과 음식]

2권 화두에 대한 정의와 참구법, 선사법문, 조사경책 등을 실었고, 심심 수행에서 흔히 겪게 되는 장애에 대한 해법을 소개.
[화두의 중요성, 화두의 정의, 화두 참구법, 화두의 소집과 擧提, 화두의 단계, 참선과 법도, 선법문 의식, 법계량 법도, 사빈주, 동념주와 정념주, 임계의 법도, 선문답하는 법, 선사법문, 조사경책, 재미있는 참선특강(참선은 아무나하나, 평계없는 무덤은 없다, 참선과 주파수 등)]

3권 지리산 00선사회의 100문 100답으로 구성. 간접적이긴 하나 수행의 깊이에 대한 점검이 가능 [선사 백문백답]

참선교육

기초에 나와 있는 禪서적과 원전히 다른 조계종 수선회 참선교육 교재 ①, ②, ③권이 출판되었습니다. 불교서점이나 대형서점 불교코너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계시는 분은 본회로 연락 주시면 등기속달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 가격 1권(3권) 3만원(국민은행 023-01-0565-179 도서출판(株) 날권 판매 가능) ● 서울시 중로구 수송동 46-19 전화 732-5960

대한불교조계종 修禪會